

## 국내 1호 고흥 '두원 운석' 관심 집중

진주서 71년만에 운석 발견되면서 다시 주목  
일본인 소유... 지질연구소 영구임대방식 보관

최근 경남 진주에서 71년 만에 운석이 발견되면서 지질박물관에 보관된 국내 유일의 운석인 '두원 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원 운석은 실제 강점기인 지난 1943년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 고 흥군 두원면 성두리 186-5 야산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돼 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 두원 운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성두마을 송규현씨로, 당시 송씨가 보관하고 있던 운석을 해방 직후 일본인 이었던 두원공립보통학교장이 일본

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56년간 일본에 있던 이 운석은 국내의 모 대학 교수가 추적한 끝에 1999년 한일정상회담 때 영구임대 방식으로 한국에 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이 일본인에게 있으며, 지금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흥군은 운석이 떨어진 장소에 안내판과 운석 모형을 전시해두고 있다.

가로 13cm, 세로 9.5cm, 높이 6.5 cm, 무게 2.117kg 크기로, 동그랑고

### ■ 현존 국내유일 운석 '두원운석'



발견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186-5 야산 1943년 11월 23일 주민 송규현씨가 발견 당시 일본인 두원공립보통학교장이 광복 후 일본으로 반출
크기	가로 13cm 세로 6.5cm 높이 6.5 cm 무게 2.117kg
종류	오디너리 코트라이트(시원운석) L-2그룹
반환	1999년 김대중정부 때 한일정상회담서 영구임대형식 국내로 들여와
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물관

길쭉한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의 설명이다.

진주 운석은 제외하고 국내에 공식적으로 운석이 보고된 사례는 4건이다. 운곡 운석, 육계 운석, 소백 운

석, 두원 운석 등으로, 이 가운데 소재지가 확인된 것은 지질연 지질박물관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두원 운석이 유일하다.

표면에는 운석이 땅에 떨어지면서 녹았던 부분이 굳으면서 생기는



지난 1943년 11월 23일 운석이 발견된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186-5 야산 일대에 기념물이 세워져 있다.

/고흥=주각증기자 gjjj@kwangju.co.kr

'퓨전 크러스트(용융각)'라는 막이 많이 남아있다. 지구상에 발견된 운석의 85%를 차지하는 '오디너리 콘드라이트(ordinary chondrite)', 즉 시원운석(미분화운석)으로 분류된다. 금속함량이 낮아 콘드라이트

'H-그룹(High)', 'L-그룹(Low)', 'LL-그룹(LL Low)' 가운데 'L-그룹'에 속한다.

이 같은 콘드라이트 덩어리가 뭉쳐져 행성이나 지구 등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원운석은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힐 열쇠가 된다.

이승렬 지질연 행성지질연구실 박사는 "시원운석은 지구의 화학적 성분을 결정하는 기본 물질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운현석기자 chadol@ 연합뉴스

## 빛가람 혁신도시 명품경관 만든다

전남도 경관위원회  
높이 21m 이상 건축물 대상  
경관·디자인·일조 등  
건축물 기준 심의 강화

# 지난 12일 전남도경관위원회는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지하 2층 지상 6층의 한 건물에 대해 재심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말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인근의 건물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이 건물주에 대해 위원회는 조경 수종 재고 등 도에서 검토한 8건의 사항까지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 지난달 같은 위원회에 제출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한 건물은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났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혁신도시에 맞는 경관과 디자인을 갖추라는 게 위원들의 조언이었다.

전남도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과 경관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올해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10건의 건축물 가운데 재심의가 2건, 조건부 의결이 8건으로, 원안 의결은 단 1건도 없었다.

조건부 의결이라도 3~5건까지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재심의 수준이라는 것이 건물주들의 하소연이다.

도가 이처럼 혁신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경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는 도내 읍·면에서는 높이가 21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경관조례 덕분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전국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경관이나 디자인을 좀 더 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읍·면에 건축물을 짓어야 하는 건축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경관 심의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물의 경관과 디자인을 손발 경우 막대한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경관, 디자인, 일조 등 도시 전반은 물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엄격해진 기준'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

동안 사전 심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주민 간 분분, 재산 가치 하락 등의 사후 마찰이나 갈등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봉수(47) 현대도시계획연구소 소장은 "경관이나 디자인, 일조 등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사전 심의에서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있으며 조정이나 조율 등 협의하는 과정도 증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혁신도시 건축물들은 심의가 아닌 자문 대상으로 바뀐다. 혁신도시 내 행정구역이 기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되면서 조례 규정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내 경관, 디자인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심의를 받은 기존 건축주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은 호소 할 가능성도 있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혁신도시는 전남의 대표 도시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며 "기존 건축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경관 및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례 규정에서 제외되더라도 바람직한 혁신 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

##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치매예방관리센터'

### 광주시, 20일 개소 본격 운영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앞에서 조선대 치매예측기술국책연구단과 광주시 주최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노인건강타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2층에 들어서는 치매예방관리센

터는 조선대 치매예측기술국책연구단이 추진하는 광주시 치매 무료검진사업의 전진기지다.

조선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남구민을 비롯한 광주시 민 1819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치매예측기술개발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치매예측기술국책사업단은 향후 6년간 277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 검진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

와 '치매조기검진센터'를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조선대병원에 각각 설치하고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에 나선다.

이번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고령자 우선으로 희망자에 한해 이뤄지며, 치매 위험군 선별을 위한 1차 검진은 광주시 치매예방관리센터에서 제공 한다.

1차 검진을 통해 치매 위험군으로 판명될 경우 조선대병원 치매조기검진센터에서 초장밀 MRI, PET(양전자단층촬영), 유전체검사 등 각종 첨단 의료진단기술을 동원해 치매

정밀검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치매예방관리센터와 퇴행성관절염 전문 빛고을온

남대병원·시립제2요양병원·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광주·전남지역 65세 이상 치매 환자 비율은 9.5%로 전국 평균 9.1%보다 월씬 높아 체계적 치매 관리가 시급한 상태이다.

/체화증기자 chae@kwangju.co.kr

## 공인 '금연 파파라치'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단속 인원이 부족해 사실상 방지할 수 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흡연단속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활동수당을 받는 흡연단속원을 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인(公認) 금연파파라치가 등장하는 것 아 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에 고개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17일 "812명을 선발하는 을 해 전남도 제2회 공무원 임용시험에 9991명이 도전장을 제출해 평균 1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선발하는 일반 행정 9급 분야는 394명 선발에 6359명이 접수해 평균 16.1대 1을 기록했고, 시설 9급은 164명 선발에 1041명(6.3대 1), 농업 9급은 37명 선발에 424명(11.5대 1)이 접수했다.

직렬별로는 녹지 9급은 7명 선발

에 135명(19.3대 1)이, 모집 단위별로는 5명을 선발하는 순천시 일반행정 9급에 229명이 접수(45.8대 1)해 각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 모집과 별도로 75명을 모집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분야는 일반 행정 9급 분야는 205명이 접수해 1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56명 선발에 204명이 접수해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운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로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리코엔(N) 골드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첨단 1899-3975 H.P 010-3598-7080

### (천주의성요한의원 공고 제14-02호)

## 의료인모집공고

본 병원에서는 운영 법인인 천주의성요한의원봉사수도회의 시행에 부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모집을 공개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 인원 : 0명

2. 모집전형 : 피부과, 가정의학과

3. 근무 장소 : 천주의성요한의원(광주광역시 소재)

4. 응시자격

1) 의사법에 의한 의사 면허(피부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소지한 자  
2) 자문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출자자격이 정지되거나 아斟한 자